

1인 가구의 경제적 특성이 외식산업에 미치는 영향

조 필 규[†]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The Effects of the Economic Characteristics of Single-person Households on the Food Service Industry

Pil Kyoo Jo[†]

Department of Economics, Hanbat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Corresponding author

Pil Kyoo Jo
Department of Economics,
Hanbat National University, 125
Dongseo-daero, Yuseong-gu,
Daejeon 34158, Korea

Tel: (042) 821-1767

Fax: (042) 821-1767

E-mail: jopk@hanbat.ac.kr

ORCID: 0000-0001-5623-0866

Acknowledg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NRF-2015S1A5B6037369).

Received: August 1, 2016

Revised: August 25, 2016

Accepted: August 25, 2016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conomic characteristics of single-person households and explain the effects of them on the food service industry.

Methods: For this paper, I analysed the data related with single-person households and the food service industry in two surveys,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and *Wholesale and Retail Trade Survey* published by Statistics Korea from 2006 to 2015, with an empirical test performed utilizing these data. The indicators of the age of householders, disposable income per capita, and the rate of household of worker were compared between single and multi-person households. Furthermore, sales and the number of establishments in the food service industry were used as industry-variables, and disposable income, eating-out expenses and the rate of single-person households as the household-variables were used in a panel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household incomes were lower, age of householder was higher, and the percentage of household of worker was lower in single-person households in contrast to multi-person households.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eating-out expenses of single-person households, in comparison to multi-person households, has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the growth of the food service industry. This means that the recent trend of increasing numbers of single-person households may help the growth of the food service industry.

Conclusions: The growth in the rate of single-person households has been one of the most striking demographic shifts in recent decades. Their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the effects were analyzed to give the managers in the food service industry and the policy-makers useful information in dealing with this new trend. Moreover, in considering the fact that single-person households eat out more frequently than multi-person households, the food service business should develop the managerial strategies focused on acclimatizing to single-person households.

Korean J Community Nutr 21(4): 321~331, 2016

KEY WORDS single-person households, economic characteristics, food service industry

서론

1인 가구는 사전적 의미로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로 정의된다[1].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2], 한국에서도 1인 가구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 현재 도시 가구를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23.75%를 차지하여 전통적인 가구 형태로 인식되었던 4인 이상 가구 29.74%와 비슷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3]. 이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1인 가구가 이미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1인 가구가 증가한 배경으로는 결혼이나 출산 등에 대한 인식의 변화나 개인주의 확산 등과 같은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청년층 취업난이나 출산·육아 및 교육비 상승 등에 기인한 미혼·독신 가구 증가, 고령화에 따른 은퇴 독거 가구의 증가 등과 같은 사회, 경제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4-10]. 이에, 1인 가구의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되어 2035년에는 전체 가구의 약 3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11].

1인 가구의 증가가 향후 한국 사회에 많은 사회, 경제적 변화를 야기하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최근의 고령화 현상이나 경기침체 등과 맞물리면서 독거 고령자 가구, 실업 혹은 반실업 상태의 청년 가구들의 증가는 건강이나 빈곤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이들 1인 가구의 소비와 주거 등의 생활 패턴이 다인 가구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12-17]. 이 때문에 주택 정책이나 복지 정책 등 국가정책 등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이나 의료 시장 등과 같은 관련 시장 및 산업 역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12, 18]. 더욱이, 하루 1회 이상 외식 비율이 2008년 24.2%에서 2014년 32.4%로 약 1.5배 증가하였고[19], 1인 가구의 식품 소비 행태는 다인 가구와 다르게 나타나므로[13] 1인 가구가 외식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1인 가구 관련 연구로는 이들의 가구 특성, 예컨대 가구주의 연령이나 성별, 직업, 교육 수준 등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이나 소비 패턴, 자산 현황 등에 대한 연구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20-24], 최근에는 1인 가구가 갖는 고유한 특성을 밝히는 데 주력하는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Jun[25]은 1인 가구의 소비지출 패턴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고령 1인 가구의 경우 가정식비와 의료비 지출비중이 높은 반면 청장년층 1인 가구의 경

우 외식비 지출비중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Lee[26]는 2012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형태가 식품 산업별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젊은 독신 가구의 식사비 지출비중이 높으며, 가구원 수가 감소할수록 식사비 지출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ee 등[13]은 분식, 치킨 등 간편한 식사가 가능한 음식점 유형에서 1인 고객 이 차지하는 매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Yoon 등[27]에 따르면, 다인 가구의 경우 집에서 만들어서 식사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1인 가구의 경우 외부에서 식사한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서 외식의 횟수 및 지출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의 1인 가구의 증가라는 현재의 추세는 외식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들 연구는 주로 1인 가구의 소비지출 패턴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1인 가구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가 개별 산업, 예컨대 식품산업이나 외식산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는 1인 가구의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 및 이들의 경제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는 1인 가구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이들의 경제적 특성이 외식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추후 외식산업의 성장 가능성 및 전략적 대응방향 모색의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연도별 가구 형태 및 특성의 변화를 파악하고, 1인 가구의 경제적 특성이 외식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로서, 국가통계 자료 분석 및 가구특성 반영 여부 모형을 적용하여 비교 분석한 연구이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분석 자료

1인 가구 관련 국가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3] 및 도소매업조사[28]를 활용하여 1인 가구의 경제적 특성과 외식산업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외식 음식점의 밀도가 농촌지역에 비하여 도시 지역에서 높고[29] 농촌 지역에 비해서 도시 거주자의 외식 비율이 높으므로[13] 본 연구의 목적인 외식산업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대상을 도시 가구로 국한하였다. 외식산업에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30]를 따랐다. 소분류 기준 음식점업에는 4개 세분류 산업이 포함되며, 여기에 다시 12개 세세분류 산업이 속한다. 즉 세분류 기준 일반 음식점업(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기관구내식당업),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출장음식서비스업), 기타음식점업(제과점업,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그 외 기타 음식점업)의 12개 산업에 대하여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96개 패널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분석방법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가구주의 연령 및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로 나누어 비교하였고, 1인 가구를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로 구분하여 연령 및 가처분소득에서 각각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하였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1인 가구의 사회, 경제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외식산업의 경우 통계청의 도소매업조사를 활용하여 매출액과 종사자 수, 그리고 수익률의 변화를 조사, 분석하였다.

3) 모형 설계 및 분석방법

가구 형태 및 특성이 외식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각 산업의 연도별 성장률을 피설명변수로 하여 패널분석을 시행하였다. 산업의 성장성에는 가구 형태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설명변수를 산업변수와 가구변수로 구분하였다.

분석에서 사용한 모형은 다음의 식 (1)과 같다. 이때 분석은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을 사용하였다.¹⁾

$$GRW_i = S_i\beta^s + H_i\beta^h + D_i\beta^d + u_i \quad (1)$$

위 식 (1)에서 GRW_i 는 i 번째 산업의 연도별 성장률 백터를 나타낸다. 각 연도별 산업의 성장률은 해당 산업의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로 계산하였다. 그리고 S_i , H_i 및 D_i 는

각각 i 번째 산업의 연도별 산업변수와 가구변수, 그리고 산업더미변수 행렬을 나타내며, u_i 는 i 번째 산업의 오차항 백터이다.

우선 성장률을 포함하여 산업 관련 자료는 통계청의 도소매업조사를 활용하였으며, 가구 변수와 관련된 자료는 가계동향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분석은 도시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만일 전체 가구, 혹은 다인 가구에 비해서 1인 가구의 경제적 특성이 유의적으로 다르다고 판명된다면, 1인 가구의 특성이 외식산업에 주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에 사용된 설명변수는 다음의 (Table 1)에 요약하였다.

우선 산업변수는 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측 요인을 반영하고 있다. 매출과 업체 수의 증가가 클수록 산업 전체의 성장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매출이 증가할수록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출이 주는 산업의 성장에 주는 영향은 사전적으로 예측될 수 없다. 따라서 매출이 성장에 주는 영향은 비선형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출의 상용로그 값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그리고 가구변수는 산업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수요측 요인을 반영하고 있다. 가구의 가처분 소득과 식자비 지출액은 외식산업의 수요증대 효과를 낳음으로써 이들 산업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될 수 있다. 또한, 1인 가구의 비율은 외식산업의 성장과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결 과

1. 가구 특성 변화 및 1인 가구의 경제적 특성 비교

1) 가구 형태 및 특성의 연도별 변화

가구 특성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가구원의 수 및 평균 연령, 1인 가구 비율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나 있다. 가구의 변화 추이에서 발견되는 특징 중 하나는 가구원 수의 감소이다. 도시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006년 2.99명에서 2015년 2.64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

Table 1. Variables in models

	Variables	Estimate and formula
Industry variables	Increasing rate of number (N) of establishment in each industry	$(N_t - N_{t-1}) / N_{t-1}$
	Sales	Logarithm of sales
Households variables	Disposal income	Logarithm of disposal income
	Meal expense	Logarithm of meal expense
	Rate of single households	single households/total households

1) 하우스만 검정 (Hausman test) 결과 5% 유의수준 하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하고 있다.

또한,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2006년 47.68세에서 2015년 52.16세로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추세는 1인 가구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즉, 2인 이상 가구의 가구주 평균 연령이 2006년 46.96세에서 2015년 50.59세로 3.63세 상승한 반면, 1인 가구의 경우 2006년 51.81세에서 2015년 57.23세로 5.42세 상승하였다. 두 가구 형태의 연령 차이는 2006년 4.85세에서 2015년 6.64세로 확대되었다. 이와 더불어, 1인 가구의 비율은 2006년 14.72%에서 2015년 23.75%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 1인 가구 및 다인 가구의 경제적 특성

1인 및 다인 가구의 소득, 근로자 가구비율 및 연령, 월평균 가처분소득을 분석한 결과는 Fig. 1, 2에 나타나 있다. 소

득을 비교한 결과(Fig. 1 참조), 1인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다인 가구에 비해서 더 낮았다. 2015년 현재 1인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약 142만 원으로 다인 가구 약 358만 원의 약 39.7%에 불과하며, 가구원 수로 보정한 다인 가구 1인당 가처분소득 약 202만 원의 약 70.38%에 불과하다.¹⁾

근로자의 비율(Fig. 1 참조)은 다인 가구에 비해서 1인 가구에서 현저히 낮게 나타났는데, 2015년 현재 다인 가구의 근로자 가구 비율이 64.3%인 데 비해 1인 근로자 가구 비율은 44.12%로 나타났다. 이들 1인 가구를 다시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Fig. 2참조), 2015년 현재 가구주 연령은 비근로자 가구 63.31세, 근로자 가구 49.53세로 비근로자 가구주의 연령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비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약 112만 7천 원으로 근로자 가구 179만 원보다 더 낮았다.

Table 2. Numbers of households, average age of head of household and rate of single households

Variables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Number of household member (n)		2.99	2.93	2.88	2.86	2.84	2.83	2.81	2.78	2.71	2.64
Ave. age of householder (year)	Single	51.81	52.34	52.77	53.36	53.79	55.16	57.24	58.14	57.70	55.23
	Multiperson	46.96	47.57	47.73	48.27	48.52	48.99	49.29	49.77	49.97	50.59
	Total	47.68	48.33	48.74	49.27	49.55	50.20	50.87	51.46	51.65	52.16
Rate of single households (%)		14.72	15.99	19.94	19.68	19.63	19.70	19.88	20.17	21.70	2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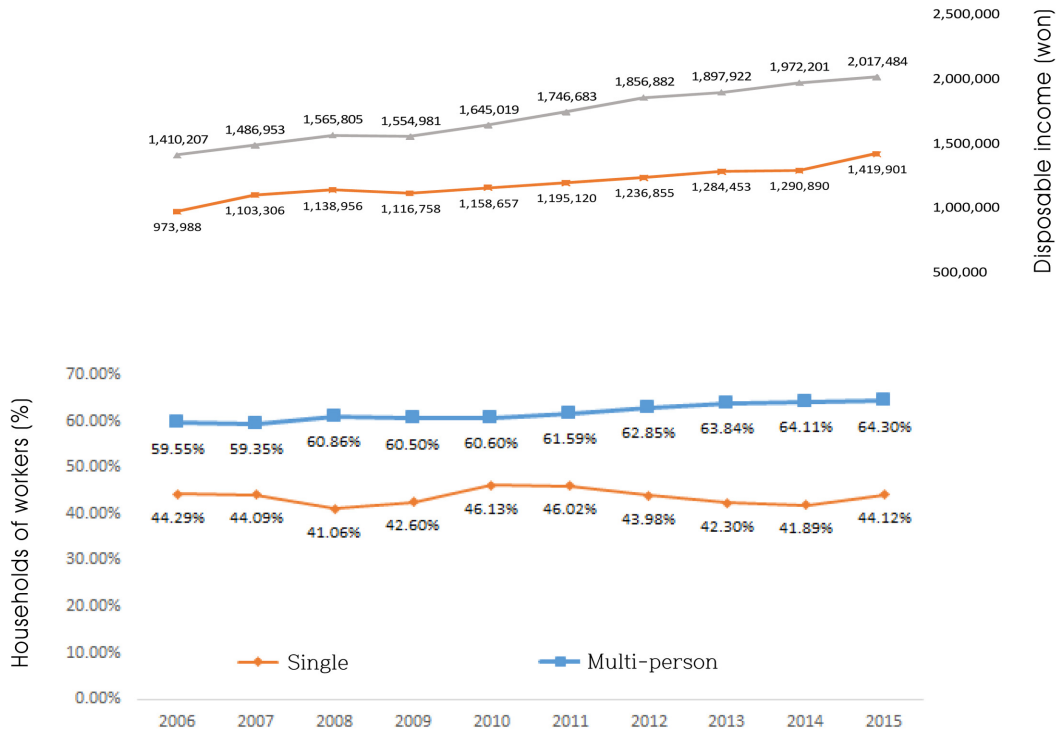


Fig. 1. Disposable income per capita and the rate of household of worker (single vs. multi-person)

1) 가처분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 값으로 나누는 OECD의 균등화 지수를 사용하였다. OECD의 균등화 지수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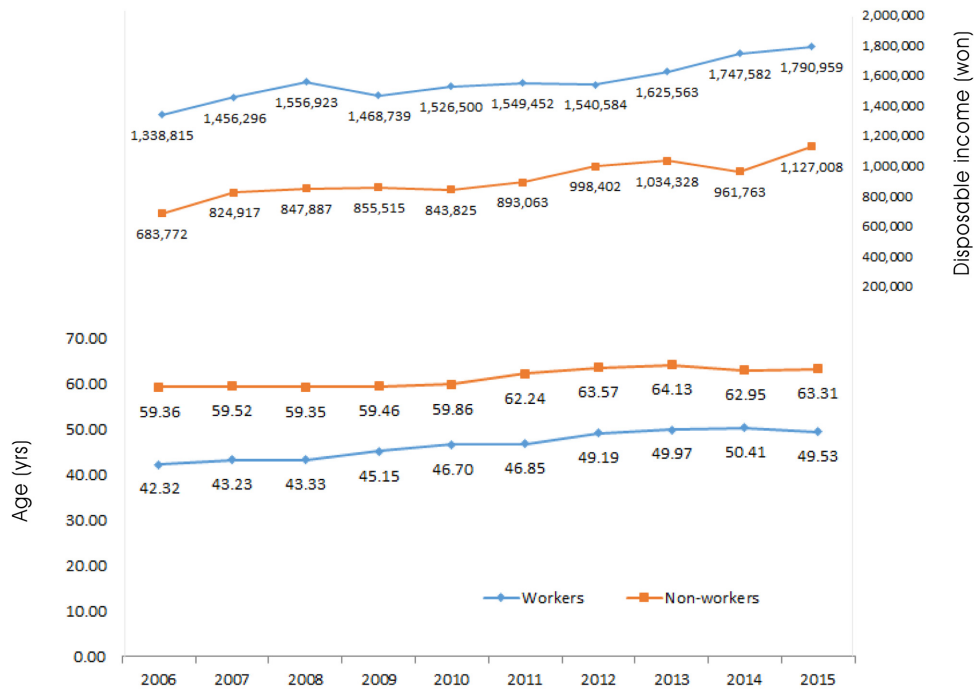


Fig. 2. Average age of householder and disposable income of single households (workers vs. non-work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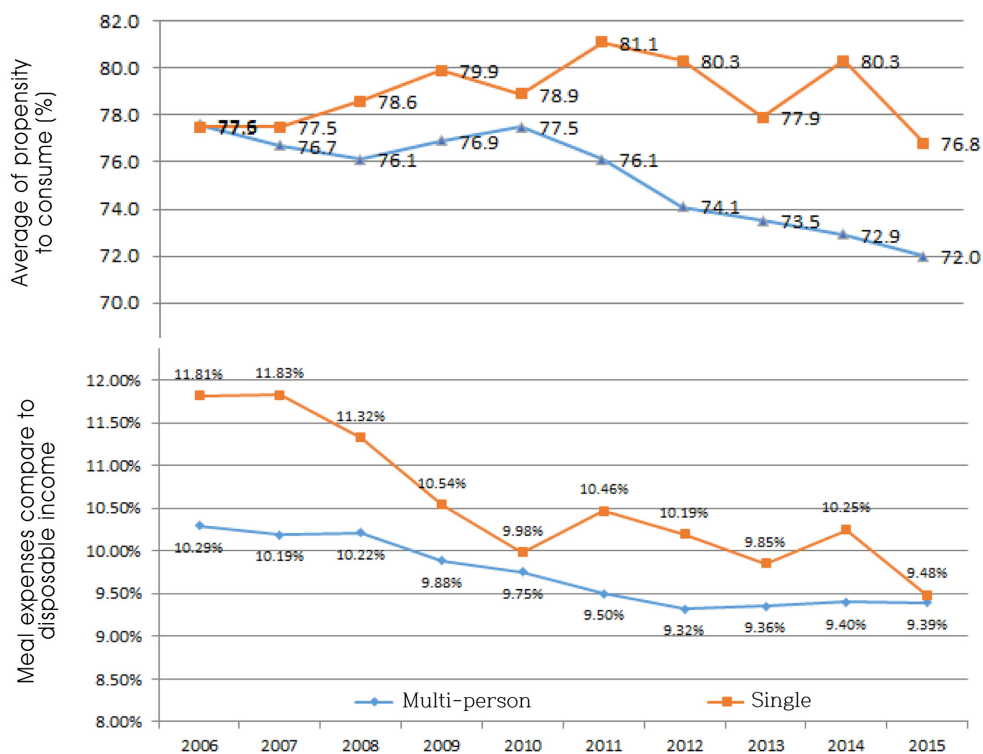


Fig. 3. Average propensity to consume and the rate of meal expenses in disposable income (%)

3) 1인 가구 및 다인 가구의 소비성향

1인 및 다인 가구의 소비성향 및 식사비 지출 비중을 비교한 결과는 Fig. 3에 나타나 있다.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

이 차지하는 평균소비성향을 비교한 결과, 1인 가구의 경우가 다인 가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또한 다인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2006년 77.6%에서 2015년 72.0%로

5.6%p 하락하였으나 같은 시기 1인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77.5%에서 76.8%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식사비 지출비중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전반적으로 1인 가구의 경우가 다인 가구에 비하여 더 높게 나타났다. 1인 가구의 경우 식사비 지출 비중은 완만하게나마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2006년 11.81%에서 2015년 9.48%로 2.33%p 하락한 데 비해서 다인 가구의 경우 같은 시기 10.29%에서 9.39%로 0.9%p 하락하는 데 그쳐 그 폭이 더 작았다.

2. 외식산업의 연도별 변화 비교

1) 외식산업 업체 및 종사자 수, 매출액

외식산업의 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의 연도별 변화를 비교한 결과는 Fig. 4에 나타나 있다. 이를 보면, 외식산업은

2006년 이후 외형적으로 꾸준히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업체 수는 2006년 약 42만 개에서 2014년 약 46만 7천 개로 2006년 대비 11.03%가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2.71%로 나타났다. 종사자수는 2006년 약 117만 명에서 2014년 약 145만 명으로 2006년과 비교할 때 23.83%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32%이다. 또한 매출액은 2006년 42조 9천억 원에서 2014년 68조 4천억 원으로 2006년 대비 59.43%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6.00%이다

2) 외식산업 성장률 및 영업이익

외식산업의 성장률, 매출액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영업이익률은 Fig. 5, 6에 나타나 있다. 매출증가율로 파악한 외식산업의 성장률(Fig. 5 참조)은 2010년을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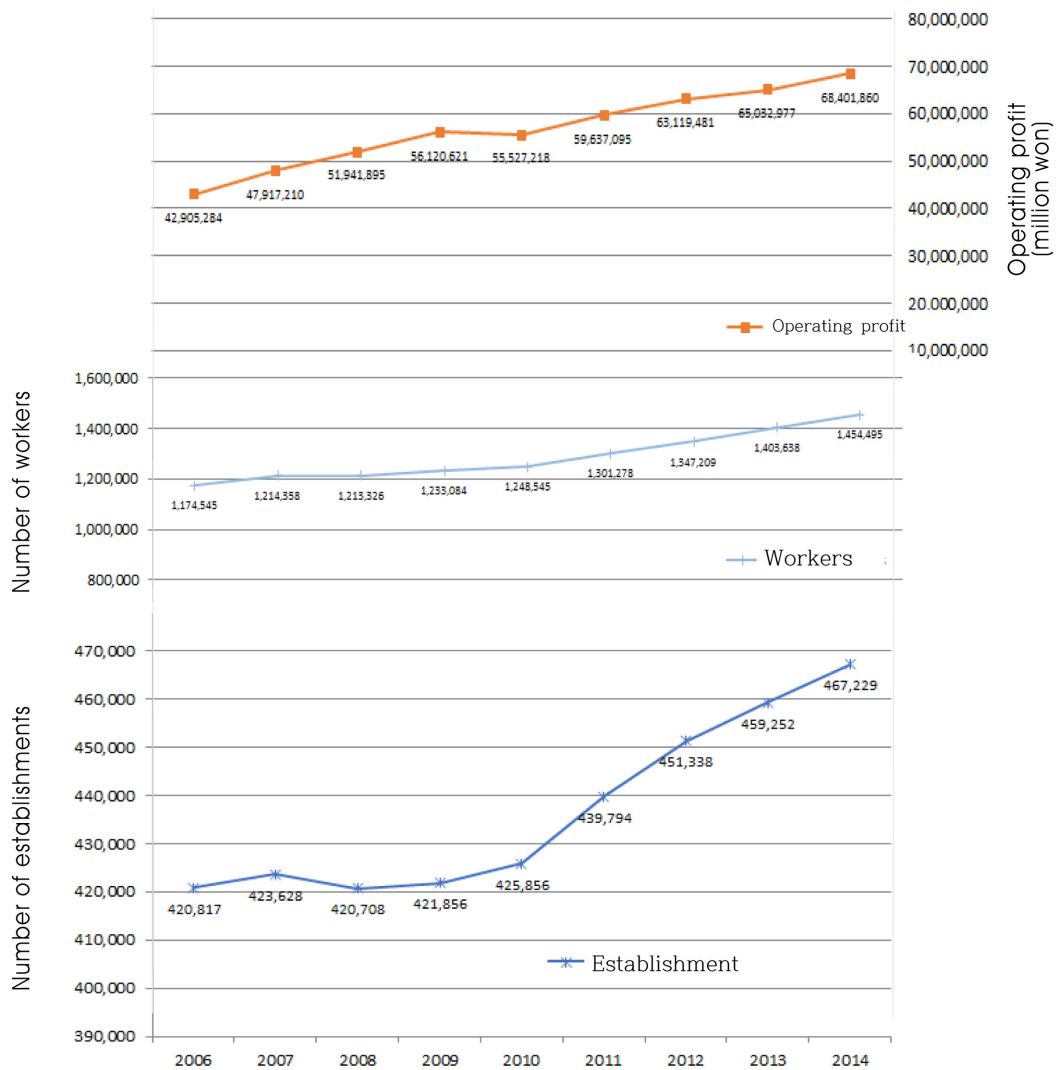


Fig. 4. Number of establishments and workers and operating profit in the food service indus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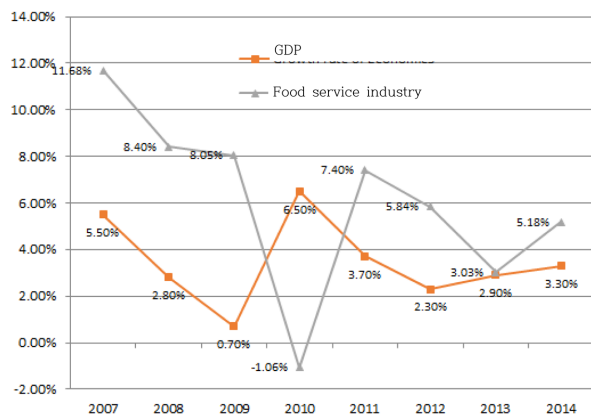


Fig. 5. Growth rate of GDP and the food service industry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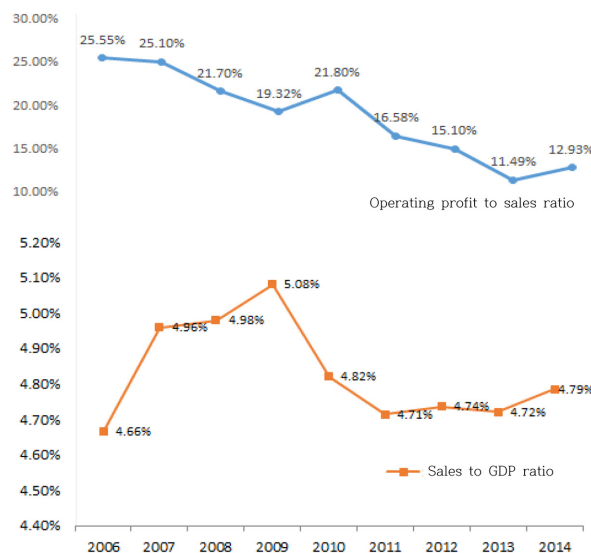


Fig. 6. Sales to GDP ratio and operating profit to sales ratio in the food service industry (%)

하고는 GDP 성장률보다 더 높지만, 추세적으로는 2006년 이후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외식업의 매출액이 전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 (Fig. 6 참조)은 꾸준히 4%대 후반 수준을 점하고 있는데, 2006년 4.66%에서 2009년 5.08%로 정점을 찍은 뒤 2014년 4.79%로 하락하였다. 이에 비하여 매출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율, 즉 영업이익률 (Fig. 6 참조)은 2010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2006년 25.55%에 달하던 영업이익률은 2013년 11.49%까지 하락하였으며, 2014년 현재 12.93%에 머물고 있다.

3. 외식산업 성장 영향 요인 분석 결과

외식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모형 1)와 도시 가구를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로 구분하여 적용한 경우 (모형 2)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3, 4에 나타나 있다. Table 3은 설명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4에 의하면 도시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 (모형 1)에는 외식 서비스업의 성장에 가구 변수는 유의적이지 않으며, 업체 수의 증가만이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즉 업체 수 증가율이 1%p 상승하면, 매출 증가율은 0.81%p 높아졌다. 이에 비하여, 도시 가구를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로 구분한 모형 2에서는 모형 1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우선 산업 변수인 업체 증가율은 여전히 유의적이었다 ($p < 0.01$). 즉 업체 수 증가율이 1%p 상승하면, 매출 증가율은 0.86%p 높아졌다. 또한 가구 변수 중 다인 가구와 관련된 변수는 외식산업의 성장에 유의적이지 않은 데 비해서 1인 가구의 식사비와 1인 가구 비율은 외식산업의 성장에 유의적으로 정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인 가구의 식사비 지출이 25.89% 증가하면, 외식산업의 성장률은 0.228%p 높아지고 ($p < 0.01$), 1인 가구의 비율이 1%p 상승하면, 외식산업의 성장률은 5.55%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Table 3. Basic statistics of explanatory variables

Variables	Average	SD	Min	Max
Sales ¹⁾	12.2885	0.5901	10.8628	13.5629
Increasing rate of number of establishment in the food service industry	0.0467	0.0812	-0.1298	0.3520
Disposal income of households ¹⁾	6.4330	0.0413	6.3688	6.4868
Meal expense of households ¹⁾	5.4237	0.0257	5.3853	5.4601
Disposal income of multi-person households ¹⁾	6.4885	0.0481	6.4105	6.5540
Meal expense of multi-person households ¹⁾	5.4711	0.0355	5.4195	5.5268
Disposal income of single households ¹⁾	6.0741	0.0431	5.9886	6.1523
Meal expense of single households ¹⁾	5.0971	0.0232	5.0610	5.1289
Rate of single households	0.1952	0.0244	0.1472	0.2357

1) Logarithm

Table 4. Results of empirical study

Variables	Model 1	Model 2
Sales	-0.022 (0.030) ¹⁾	-0.020 (0.030)
Increasing rate of number of establishment in the food service industry	0.810 (0.183)**	0.860 (0.185)**
Disposal income of households	-2.262 (1.186)	
Meal expense of households	2.853 (1.920)	
Disposal income of multi-person households		-0.742 (2.473)
Meal expense of multi-person households		-4.184 (5.924)
Disposal income of single households		1.780 (4.840)
Meal expense of single households		2.277 (1.514)**
Rate of single households		5.548 (2.623)*
R^2	0.343	0.402
adj. R^2	0.291	0.353

Each model has dummy variables in 4 digits classification of industry

1) Coefficient (Standard error)

*: $p < 0.05$, **: $p < 0.01$

고 찰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사회,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는 한편, 1인 가구의 증가라는 현상과 특성이 외식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실시되었다.

1인 가구의 사회,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1인 가구 자료가 집계되는 2006년 이후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가계 구조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 특징은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전체 도시 가구에서 차지하는 1인 가구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동시에 가구주의 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1인 가구에서 더 뚜렷이 나타났다. 이는 지역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지역 간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18],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와 평균수명에 있어서의 남녀 차이, 부모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노년기의 1인 가구가 증대한다는 타 연구 결과[5, 8, 17]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1인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다인 가구에 비하여 낮았는데, 이는 다인 가구의 경우 맞벌이 가구와 같이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여러 명 있을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할 수도 있지만, 다인 가구에 비해 1인 가구의 가구주 연령은 더 높고, 근로자의 비율은 더 낮다는 것에 비추보면, 1인 가구의 경우 고령자 은퇴 가구가 더 많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실제로 본 연구를 통해, 1인 가구의 근로자 가구 비율이 다인 가구에 비해서 낮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1인 비근로자 가구가 1인 근로자 가구에 비해서 연령은 높은 반면 소득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다인 가구에 비해서 은퇴 고령자 가구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이들 고령 은퇴자 1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5년 현재 1인 비근로자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다인 근로자 가구 1인당 가처분 소득의 52.49%에 불과하며, 다인 비근로자 가구와 비교해도 63.63%에 그치고 있다[3]. 이러한 추세로 볼 때,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와 빠른 고령화 속도[8]를 감안하면, 향후 한국 경제에서 이들 독거 고령자 가구의 빈곤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Kim[31]이 1인 가구의 경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비율이 1인 가구의 45%를 차지하여 다인 가구의 10.9% 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이 이를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평균소비성향이 모든 형태의 도시 가구에서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최근의 경기불황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사료된다. 그럼에도 1인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이 다인 가구에 비해서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 1인 가구의 소득이 낮고, 따라서 이들 1인 가구의 소비지출이 다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에 둔감한 품목, 예컨대 필수 소비재에 집중[16]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국회포럼[32]에서 한국 경제는 ‘한국형 장기침체’가 시작되어 젊은 층의 생계와 노인층 빈곤이 문제가 될 것이라 지적된바 있다. 혼자서 생활하는 1인 가구의 45%가 미혼으로, 사회적 문제로까지 인식될 수 있는 것은 1인 가구는 남성보다는 여성, 비노인 인구보다는 노인 인구층의 비중이 높아 대부분 경제적 약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4]. 더욱이, 1인 가구의 건강상태가 다인 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12] 1인 가구의 건강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며, 이들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외식산업의 매출과 업체 수, 종사자 측면 등의 외형적 성장은 2006년 이후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성장률은 둔화되고, 수익성은 하락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외식산업의 영세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최근의 경기불황 국면에서 은퇴자들이 비교적 창업이 손쉬운 외식업으로 많이 진출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고 [33, 34], 이들 자영업의 경우 대부분 그 규모면에서 영세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5]. 이는 외식산업의 경우도 그 규모의 영세함이 확연히 눈에 띈다. 우리나라 외식산업은 종업원 수가 5인 미만인 업체 비중이 다른 서비스산업보다 높고 노동생산성은 낮아 영세성이 높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33]. 외식업체는 대부분 가족경영, 자영업 중심의 생계형일 뿐만 아니라 그 규모면에서의 영세함으로 인해 휴·폐업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34]. 국제청의 2015년 국제통계연보 [35]에 따르면 2015년 폐업한 자영업자 68만 604명 중 외식업체를 운영하다가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15만 6천 여명으로 전체의 23.0%를 차지하는 등 열악한 외식업의 창·폐업 실태를 드러냈다. 2014년 현재 외식산업에서 종사자 수 1-4인인 업체가 전체의 86.22%에 달하며, 특히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창업하는 분야로 알려진 치킨 전문점이나 김밥 전문점은 그 비율이 90%를 상회한다 [28]. 결과적으로 자영업자의 증가와 함께 매출액과 업체 및 종사자의 수는 증가하였지만, 과도한 자영 음식업의 팽창은 오히려 이들 산업에서 수익성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외식 산업은 외형적 성장을 가져왔음에도 질적으로는 침체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인 가구의 증가라는 최근의 사회적 변화는 이들 산업에서의 새로운 기회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증가 추세가 이들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공급측 요인으로 업체 수의 증가는 외식산업 전체의 성장에 유의적이다. 수요측 요인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의 가처분 소득과 식사비 지출액은 유의적인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가구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외식산업의 성장에는 1인 가구의 식사비 지출 규모가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1인 가구 비율이 유의적이라는 것은 최근의 1인 가구가 증가는 하는 현상이 외식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서 외식의 빈도가 잦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Yoon 등 [27]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외부에서 식사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외부에서 사와서 집에서 식사한다’는 응답이 다인 가구에 비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결과와 유관하다. 또한, Lee 등 [13]의 연구에 의하면 1인 가구의 식품구입 형태는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편의점과 통신판매를 통해 구입하는 비중이 높고 소용량으로 구입하는 비중이 높았으므로 이러한 소비행태에 대비하여 소품종 다양화를 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영업자의 과도한 진출과 이들 간의 경쟁심화는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자영업자가 몰리는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 간에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도 존재함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의 소비 행태가 이들 외식 산업에 긍정적인 수 있다면, 외식산업의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외식산업은 이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전략이 적극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최근 외식업계에서는 매장 내 1인석의 비중을 높이거나 칸막이를 설치하여 혼자 식사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또한 배달 및 포장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며, 배달 업체와 제휴된 앱(app) 서비스 역시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36]. 최근 부진에 직면한 외식산업의 상황을 감안할 때, 1인 가구의 식생활 패턴에 대응하는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은 나름의 적절한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외식시장(음식점업 및 주점업 포함)에서는 패스트푸드점과 기타 음식점업(분식 및 김밥 전문점 등)의 매출액 증가가 상대적으로 큰 편으로 전망되고 있어 [13], 간편성과 접근성 등을 추구하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1인가구의 생활, 경제적 특성이 다양하므로 [17] 1인 가구의 성별, 연령별, 소득 수준 등에 따른 맞춤형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1인 가구는 아침, 점심, 저녁 세끼 모두 다인 가구에 비하여 혼자 식사하는 비율이 약 2~3배 정도 높고, 매일 혼자 외식하는 비율은 다인가구에 비하여 약 2배 정도가 높으며, 연령별 외식 장소 및 선택이유가 다르므로 [13, 27], 1인가구 특성별 전략 마련은 외식산업의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음식점, 편의점, 백화점, 길거리 등 식사 장소별 이용률이 높은 1인 가구자의 연령, 성별, 경제적 특성에 따른 메뉴 제공, 소포장 간편식 등의 메뉴 개발, 혼자 식사하는 데에 부담이 없도록 매장의 분위기를 바꾸거나 인테리어를 바꾸는 등을 시도할 수 있고, 이는 문화적 소비패턴의 요구 [37]에도 부합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1인 가구 관련 국가 통계자료가 2006년부터 집계되어 시계열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외식산업의 개별 업종에 대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하였으나, 1인 가구의 특성과 외식산업의 성장과의 관계를 밝혔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더 나아가 1인 가구가 혼자식사와 관련성이 있으므로 외식산업에 주는 영향을

주는 혼자 식사자의 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소비자 패널 조사와 혼자 식사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의 자료를 병행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1인 가구의 식생활 및 사회경제특성 관련 설문 조사가 함께 실시된다면 특성별 맞춤형 외식산업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사회,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는 한편, 이들 특성과 1인 가구의 증가라는 현상이 외식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6년에서 2015년까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도소매업조사의 1인 가구와 외식산업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는 한편 이들 자료로부터 96개 패널 자료를 구축하여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가구 형태의 변화 추이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 특징은 가구원 수의 감소와 1인 가구의 증가이다. 도시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지속적으로 하락(2006년 2.99명; 2015년 2.64명)하였다. 또한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상승하였는데(2006년 47.68세; 2015년 52.16세) 이러한 추세는 1인 가구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이와 함께 도시 1인 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2006년 14.72%; 2015년 23.75%).

2.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소득을 비교한 결과, 1인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다인 가구의 1인당 가처분소득의 70.38%에 불과하였고, 근로자 가구의 비율도 낮게 나타났다(1인 가구 44.12%; 다인 가구 64.3%). 또한 1인 가구의 경우, 비근로자 가구주의 연령(63.31세)이 근로자 가구주의 연령(49.53세)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비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112만 7천 원)은 근로자 가구(179만 원)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평균소비성향은 1인 가구에서 다인 가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하락폭 또한 작았다(1인 가구 0.7%p; 다인 가구 5.6%p). 반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식사비 지출비중은 1인 가구에서 다인 가구보다 더 높았지만, 다인 가구의 하락폭이 더 적었다(1인 가구 2.33%p; 다인 가구 0.9%p).

4. 외식산업은 2006년 이후 외형적으로 꾸준히 상승하였는데, 연평균 업체 수는 2.71%, 종사자수는 1.32%, 매출액은 6.00% 증가하였다. 이에, GDP 증가율보다 외식업의 매출 증가율이 대체적으로 더 높았지만, 2006년 이후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외식업의 매출액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4%대 후반 수준을 점하고 있고, 매출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2006년 25.55%; 2014년 12.93%).

5. 외식산업의 성장에 외식업체 수 증가 정도가 유의적인($p < 0.01$) 영향을 미치며, 1인 가구의 식사비($p < 0.01$) 및 1인 가구 비율($p < 0.05$) 역시 유의적으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되리라 예상되는 가운데, 본 연구를 통해,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하여 가처분소득은 낮고, 식사비 지출비중은 높으며, 외식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1인 가구의 식사비용에 대한 경제적 측면 및 혼자서도 다양한 식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접근성 및 편리성이 고려된다면, 외식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1인 가구가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리라 사료된다.

References

1. Statistics Korea. Statistical Terms [Internet]. 2016 [cited 2016 May 27].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eng/resources/4/detail_lang.action?bmode=detail_lang&pageNo=1&type=class&cls=O&list_no=230.
2. Davos 2007: Labour and the Shifting Power Equation. Statement of Labour Leaders to the World Economic Forum Annual Meeting (Davos, 24-28 January 2007) [Internet]. 2007 [cited 2016 May 28]. Available from: http://www.tuac.org/en/public/e-docs/00/00/01/A0/document_doc.phtml.
3. Statistics Korea.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New Classification) every year [Internet]. 2016 [updated 2015 May 27; cited 2016 May 27]. Available from: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F028&conn_path=12.
4. Kim DH. An analysis on living condition influenced by the determinants of growth of single youth households and government policy. Proceedings of 2012 Annual Conference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2012 Nov 9; Seoul: p. 1-27.
5. Kim HS. The role of family, government and society for old age guarantee. KDI Focus. 2015 Mar: 1-8.
6. Statistics Korea. 2010 Report on the social survey. Daejeon: Statistics Korea; 2010.
7. Lee SS. The 2015 national survey on fertility and family health and welfar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5 Dec. Report No. 2015-31.
8. Statistics Korea. 2015 the aged statistics. 2015 [updated 2015 Sep 14; cited 2016 May 10].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48565.
9. Joo JS, Moon YK, Kim YT, Kim YR, Song CS, Lim YG et al.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5 Dec. Report No. 20.

10. Chang HK, Hwang KI, Choi IH, Kim YR, Joo JS, Kim SY et al. An analysis on the Korean family status survey 2015.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5 Dec. Report No. 2015-65.
11. Statistics Korea. Projected households by age, type and size. 2014 [updated 2014 Jan 14; cited 2016 May 10]. Available from: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A#SubCont.
12. Kang EN, Lee MH. Single-person households in South Korea and their policy implication. Health Welf Policy Forum 2016; 234: 47-56.
13. Lee, KI, Hwang YJ, Ban HJ, Lim SJ, Jin HJ, Lee HS. Impact of the growth of single-person households on the food market and policy task.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5 Oct. Report No. R762.
14. Han JM, Lee YH. An analysis on the influence of the growth of single households on consumers' expenditure. KIET Ind Econ 2013(6): 22-31.
15. Seo JJ. The growth of solo economy and the financial industry. KB Research Institute; 2013 Mar.
16. Lee EM. The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single household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tatistics of population and family-budget. SERI Econ Focus 2013; 422: 1-10.
17. Chung KH, Nam SH, Chung EJ, Lee JH, Lee YK, Kim JS et al. Policy implications of changes in family structure: focused on the increase of single person households in Kore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2 Dec. Report No. 2012-47-25.
18. Byun MR, Choi JW, Park MJ, Lee HJ, Kim JA. A study on the policy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or single households. The Seoul Institute; 2015 Feb. Report No. 2014-ER-27.
1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Internet]. 2015 [cited 2016 May 27]. Available from: <https://knhanes.cdc.go.kr/knhanes/index.do>.
20. Lee HY, Noh SC, Choi EY. Growth pattern and spatial distribution of one-person households by socio-economic demographic characteristics. J Korean Geogr Soc 2011; 46(4): 480-500
21. Kim HJ. An analysis of household debt burden by householder's occupation. Soc Welf Policy 2004; 20: 109-131.
22. Kim JY, You SD. The effects of household characteristics on housing tenure choice and house type. Hous Stud Rev 2013; 21(4): 61-85.
23. Lee KA, Chung EC. Residential mobility and housing tenure choice decisions of older homeowners: impacts of gender-specific characteristics of household heads. Hous Stud Rev 2014; 22(3): 127-156.
24. Park KS, Kim MS. The impact of change in household living arrangements on the changes in poverty rate among elderly people in South Korea. Korean J Sociol 2016; 50(1): 221-253.
25. Jun SM. Spending pattern types and their determinants for one-person households in Korea. J Consum Policy Stud 2013; 44(3): 21-43.
26. Lee SL. The effect of household demographic trend of food expenditure pattern. J Consum Cult 2014; 17(3): 85-104.
27. Yoon DH, Chae SA, Song ET. A survey on single households: 2014 vs. 2015 Tracking Survey. Embrain; 2015 Mar. Report No. TK_201503_TR_1141.
28. Statistics Korea. Statistical database [Internet]. 2016 [cited 2016 May 27]. Available from: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mTabId=M_01_01.
29. Kim SA, Choe JS, Joung HJ, Chang MJ, Kim Y, Lee SE. Comparison of the distribution and accessibility of restaurants in urban area and rural area. J Nutr Health 2014; 47(6): 475-483.
30. Statistics Korea.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Industry [Internet]. 2016 [cited 2016 May 27]. Available from: <https://kssc.kostat.go.kr/>.
31. Kim GS. The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single households. Hyundai Research Institute; 2015 Aug. Report No. 15-33(Vol.654).
32. Korean National Assembly forum. Korean economy, deflation or long-term recession. 2015.
33. Kim SW, Kim BR, Kim YJ, Jun IS. A study on improving competitiveness of the food service industry.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4 Dec. Report No. R741.
34. Lee EJ. The direction of policy on the food service industry. Proceedings of 2011 Annual Conference of the Korean Food Service Association; 2011 Nov 26; p. 54-76.
35. National Tax Statistics. 2015 National Tax Statistics Yearbook [internet]. 2016 [cited 2016 May 27]. Available from: http://stats.nts.go.kr/data/data_view.asp?idx=1082.
36. Park HW, Na K. Study on restaurant franchise service reflected on a single household consumer patterns: focus on 2030 generation. J Digit Des 2015; 15(3): 697-704.
37. Park JH, Lee SH, Han SH. An analysis on expenditure pattern on cultural consumption of single households. Korean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2015 Jun. Report No. 2015-376.